



[산업]
다보스포럼
사회적 가치 전파한 SK
혁신기술 강조한 KT
06·08

[라이프]
CJ제일제당 '햇반'
400만 가마니
밥 지어 3조 매출



L1

고대유적 흔적 그리스신전 가파른 절벽 위 파란 지붕 한 폭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다



산토리니 섬에서 약 3시간이면 도착하는 '미코노스 섬'

/한진관광

메트로 트래블

2016년부터 대한항공 직항·그리스 전세기 상품을 성공시킨 한진관광이 대한항공 직항 그리스 전세기 상품을 아심차게 선보인다.

한진관광 그리스 전세기는 4월 24일, 5월 1, 8, 15, 22일 매주 금요일 총 5회 출발하며 일반 육로 일정뿐 아니라 그리스의 아름다운 섬 산토리니, 크레타, 빙모, 미코노스 섬을 잇는 셀레스티얼(Celestial)크루즈 일정이 포함된 상품까지 포함돼 눈길을 끈다.

고대 여행지와 휴양지가 모두 모여있는 이색적인 도시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바로 이곳, 그리스를 추천 한다. 아테네는 수많은 고대 기념물과 예술 작품이 남아있어 부귀영화를 누렸던 로마 제국과 비잔티움 제국, 오스만 제국 시대를 만나볼 수 있다. 그리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파르테논 신전'도 바로 이곳 아테네에 위치해 있으며, 이외에도 '소크라테스 감옥', '에리테온 신전' 등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신혼여행으로 많이 찾는 그리스 휴양지는 단연 '산토리니 섬'과 '미코노스 섬'이다.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애개해와 맞닿은 두 섬은 그리스를 대표 하는 관광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산토리니 섬은 가파른 절벽 위에 파란 지붕을 가진 하얀 집들과 짙은 푸른 바다와 어울려 한 폭의 그림 같은 낭만적인 도시다.

그리스 대표 관광명소 뿐 아니라 아름다운 섬까지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한진관광의 대한항공 직항 전세기 상품은 9일 일정의 대표 상품이다. 프리미엄, 품격, 크루즈, 테마 상품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취향 따라 골라갈 수 있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 여행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진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광객이 사랑하는 도시, 아테네

세계문화유산 1호인 '아크로폴리스(Acropolis)'는 그리스어로 '높은'을 뜻하는 아크로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가 합쳐져 생긴 표현이다. 이름에서 드러나듯 아크로폴리스는 높고 가파른 구릉지에 자리 잡았다. 원래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도시마다 제일 높은 곳에 세워진 신전이지만, '파르테논 신전(Parthenon)'이 있는 이곳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가 가장 유명하다.

아테네의 수호여신 아테나에게 바친 신전이라는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서 유일하게 바닥과 기둥, 지붕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대리석만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그 무거운 대리석들을 이곳까지 옮겨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연과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메테오라 수도원

'공중에 떠있는 수도원', '메테오라'는 그리스 여행의 필수코스이자 영화 '300'촬영지로 유명하다. 테살리아 평원 중간중간 솟아있는 기이한 모양 봉우리에는 각각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다. 높이가 낮게는 20m, 높게는 400m에 이른다는데, 그 꼭대기에 어떻게 수도원을 지었는지 정말 놀랍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건물은 위태로움과 동시에 경이로움을 자아낸다.

태양신의 신탁 받은 성지, 델피 유적지

각 도시국가가 기증한 수 많은 상과 건축물들의 흔적이 남아있어 그리스 최대 성지로 꼽히는 '델피 유적지'는 태양신 아폴론에게 제를 올리고 신탁을 받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메테오라 수도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신탁의 도시 델피.

델피 성역 입구에는 로마와 비잔틴 시대에 '아고라'로 쓰였던 아고라 터가 남아있다. 시장이라는 의미의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들에 있었던 열린 회의의 장소였다.

'아폴론 신전 터'는 근엄한 모습의 파르나소스 산을 바라보며 신성한 길(Scared Way, 델포이 성역의 입구에서 아폴론 신전에 이르는 길)을 따라 구불구불 올라가야 만날 수 있다. 아폴로 신전은 1987년 유네스코에 의해 델포이 고고유적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발걸음을 조금만 옮기면 세계의 배꼽 '옴파로스'도 특별한 관광 포인트다.

애개해와 맞닿은 청량한 섬, 산토리니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져 있는 '산토리니 섬(Santorini)'. '그래봤자 그냥 마을일 뿐인데...'하는 의심을 가지던 여행자도 직접 눈으로 풍경을 확인하는 순간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진다.

눈부신 애개해와 희고 푸른빛으로 물든 집들이 눈이 아니라 가슴 속으로 흙하고 들어온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이라고는 그저 '아...' 하는 감탄사 뿐. 끝없는 애개해에 둘러싸인 조그만 섬에 절벽을 기어올라 터를 잡고 집을 지어 놓은 모습이 마치 초현실주의 작품처럼 느껴진다. 태양빛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건물의 빛이 관광객의 발목을 잡고 결국 한참이나 멍하게 바라보게 만든다.

순백의 도시, 미코노스섬

산토리니 섬에서 약 3시간이면 도착하는 '미코노스섬'. 미코노스섬은 일생에 한 번뿐인 허니문으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찾아 언제나 붐빈다. 푸른 바다와 하얀 집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광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미코노스섬 상징 중 풍차가 있는 '호라'를 빼놓을 수 없다. 호라는 '리틀 베니스'라고 불릴 만큼 이국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호라타운에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 보면 좁은 골목길이 복잡하게 얹혀 명동 한복판 못지 않게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로 가득해 소소한 재미를 선사한다. 해가 저물고 밤이 되면 나이트라이프를 즐기는 젊은이들 활기로 가득 차는 것도 미코노스섬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묘미다. 평화롭고 조용한 낮의 모습과 180도 달라진 분위기가 이색적이다.

/이민희 기자 lmh@metroseoul.co.kr

/자료협조: 한진관광

여행 단신

코레일관광개발

지역주민 초대해 '복잔치'

코레일관광개발은 21일 서울 중랑구 신내경로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주민 100여 명을 초대해 '설맞이 복(福)잔치'와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은 '설맞이 복(福)잔치'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전통차 다도체험, 켈리그라피 덕담받기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자유투어

세뱃돈 모아 러시아로

자유투어 흥보모델 정상훈이 설날 맞이 세뱃돈 받고 떠날 수 있는 러시아 여행을 추천해왔다. 정상훈이 추천하는 러시아 여행의 가장 큰 포인트는 러시아 핵심 도시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모두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적기 대한항공 직항 탑승으로 편안한 이동이 가능하며, 박물관이나 궁전 같은 내부 관람역시 모두 포함돼 러시아 핵심 일주가 가능한 상품이다.

일성여행사

유럽 인문학으로 소통

일성여행사 유럽브랜드 '디자인유럽'팀이 깊이 있고 흥미로운 유럽 인문학 이야기로 일반인들과 소통한다. 첫번째 소통은 음악 칼럼니스트 유혁준의 '베네치아의 사생아와 비발디의 사계'로 2월 1일 토요일 11시 20분 HDC 아이파크타워 1층 포니홀에서 열린다. 두번째 소통은 아트스토리 105 대표인 이창용 강사의 '남프랑스에서 샤갈과 고흐를 만나다'로 2월 8일 토요일 11시 20분 광화문 센터포인트 지하 1층에서 열린다. 각 참가비는 3만원이다.

휘닉스 평창

가족 겨울여행으로 '제격'

휘닉스 평창은 겨울 고객들을 위한 여러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스노우빌리지'튜브 눈썰매는 150m 길이의 눈썰매장을 투브를 타고 내려가면서 짜릿한 스피드를 만끽 할 수 있다. 또 별빛 무빙워크와 일루미네이션, 눈미로와 대형 이글루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포토존이 구성돼 있어 인생샷을 만들 수 있다. 추위에 지친 몸의 피로를 풀어줄 '블루캐니언 원터 스파'도 준비되어 있다. 2월 말까지 스노우빌리지 및 리프트 이용객에게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민희 기자